사랑하는 사람들에게~

古之人目短於自見，(옛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었기에)

故以鏡觀面；(거울로 자신을 보았으며)

智短於自知，(지혜로 자신을 알기에 부족했기에)

故以道正己。(道로써 자신을 바로 잡았다.)

故鏡無見疵之罪, (그러므로 거울에 흠이 비쳤다고 해서 허물이 될 것도 없고)

道無明過之怨。(道로써 자신의 잘못이 밝혀졌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다.)

目失鏡則無以正鬚眉，(눈이 있어도 거울이 없다면 수염과 눈썹은 바로 다듬을 수 없으며)

身失道則無以知迷惑 (몸이 道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미혹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른다.)

韓非子의 '觀行'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.

욕심이 너무 많다보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람들 앞에 투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,

하나님께는 정직이라는 한 마음과 내 이웃들에게는 삶의 투명이라는 관계적 선교의 덕목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에 하나님 나라의 에덴을 꿈꾸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9월 기도제목을 보내 드립니다.

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.

9월 기도제목

*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

* 에덴을 회복하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

* 지역 전도를 힘쓰며 양육과 훈련을 통해 신실한 일군들이 세워 지게 하소서

* 학교설립 허가를 받고 리보네구아에 본교를 시작으로 도심지에 준비된 땅에 기독 국제 학교가 건축되고 상류층이 빈민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소서

* 까보베르데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합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

* 한국을 방문하는 Juliana 선교사와 까보베르데를 방문하는 조 선교사 형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밟는 땅에 대한 특별한 영적 이해를 할 수 있기를

* 조 선교사의 10월초 LA 방문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될 수 있도록

서부 아프리카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조 남홍, 연섭 선교사 드립니다.

소　속 : 한국 불어권 선교회, GMP America

전　화 : 한국 070-8724-4456, 까보베르데 238) 959-3512, 3513

주　소 : CP 1007, Praia, Cape Verde

E-Mail : nhongcho@hanmail.net, ycho56213@daum.net

카톡 ID : cavoverdecho, Aroma56